

남편 선거운동에 제자 동원한 대학교수

광주 모 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에 지도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6년 선거 사무실 개소 때 학생 4명이 자발적으로 도와줬으며 권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20일 광주 모 대학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가 개강하는 3월부터 A교수의 강의를 거부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A교수가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지지해달라면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북 콘서트 등 선거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는 내빈 안내 업무를 도와준 학생들에게 사례금을 전달했다"며 "실습시간에는 선거에 출마한 남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출마한 지역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파악했고 선거운동원 명찰을 단 채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선거운동 관련 진화 이유로 강의 중 30분~40분 동안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학교장에 부임한 A교수가 학생회비 납부를 종용했던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학생들은 "A교수는 학생회비 미납한 학생들을 따로 부르거나 지도교수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학생회비 납부를 요구했다"며 "학생회비를 미납할 경우 지도교수가 대신 내야 한다"는 이유로 재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교내 복도 게시판에 "선거운동에 따른 근무 태만과 학생회비 납부 독려 등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선거 운동 중 우연히 실습학생들을 만나 인사한 적은 있지만 학교 또는 실습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2016년 선거 때는 학생 4명이 자발적으로 도와줘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선거에서는 5월 북 콘서트 당시 도움을 구했지만 참여 학생이 없었다"며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적은 없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생회비 납부 종용에 대해서는 "절제된 학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좋은 취지였지만 학생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

학생들, 강의 거부·자진사퇴 서명운동 계획 교수, 공개사과 뒤 학과장 사퇴...징계위 회부

다"고 밝혔다. 반발이 거세지자 A교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학과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학교 측에는 1년 간 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A교수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오는 25일 열릴 2차 징계위원회를 통해 A교수의 임정을 청취할 계획이다.

신봉우 기자



검게 타버린 사우나내부 20일 오후 대구 중구 포정동의 한 사우나 건물 화재현장에서 한전, 구조기술사, 구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긴급 건물 안전점검팀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광양시 산림조합장 선거 과열양상

광양시 산림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넘어 혼탁 선거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양을 소재 모 아파트 현관문에 명함을 꽂아두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 중이다.

선관위와 복수관계자에 따르면 S모 산림조합장 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명부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합원 호별 방문해 명함을 전달하고 현관문에 꽂아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사실 확인 중이다.

광양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등이 조합원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명함 등을 전달하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현관문 등에 꽂아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광양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경고 1건이 있다"면서 "선거법위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다른 사안도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후보 예정자는 한 때

체를 통해 "모 아파트에 지인들이 살고 있어 방문했다"며 "다만 이들 중 산림조합원도 있지만 일반인도 있다"고 밝혔다.

K 후보 예정자 또한 해당명함을 통해 "지인들의 가정을 방문했다"는 핑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가족들과 함께 호별 방문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다.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본인 외 가족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감감히 선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주 거주 고려인 임금체불 '심각'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임금체불'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가 소송 지원에 나선다.

광주YMCA 시민권아변호인단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

지 광주고려인마을 거주 고려인들 대상으로 74차례에 걸쳐 594건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담 결과 임금체불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90%에 달하는 536

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제해 17건(3%), 비자문제 15건(3%), 부동신우폐차·채권채무 등 기타 21건(4%)으로 집계됐다.

시민권아변호인단은 고려인들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곡성 실종 사건 사용 추정 차량 발견 정밀감식

곡성에서 범죄에 연루돼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에게 대한 수색이 6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의 뒤를 따라왔던 용의자의 차량이 발견됐다.

곡성경찰서는 20일 실종된 A(59)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B(50)씨가 사용했던 1t 트럭을 이날 찾았다고 밝혔다.

트럭은 광주의 한 불꽃아트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학수사요원 등을 투입해 차량 내부를 정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CCTV 등을 확보해 차량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버려진 트럭 주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경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B씨가 트럭을 버린 뒤 미리 준비해 둔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분이 확인되면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의 한 마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40분께 실종됐다는 신고가 부인으로부터 접수됐다.

경찰은 곡성의 한 도로에서 A씨의 SUV 차량을 발견했으며 뒷좌석에 혈흔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포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CCTV와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경찰은 B씨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한 뒤 지난 18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모처에서 붙잡혔다.

B씨는 앞서 A씨의 통장에서 지난 15일 오후, 16일 오전 각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인출했다.

B씨는 검거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A씨의 행방 등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김광희 기자

술값 떼먹은 중장년 남성들 잇단 검거

광주에서 무전취식을 한 중장년층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조모(5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 북구 모 술집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마신 뒤 술값 8만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혼자 술을 마신 뒤 '돈이 없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모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대금 3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강모(63)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는 강씨는 돈을 낼 것처럼 안주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께 지역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값과 안주비용 등 98만 원을 내지 않은 조모(40)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고 입건했다.

민취한 조씨는 일행들이 먼저 자리를 뜨자 행패를 부렸으며 추후 대금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 폭행하고 은행통장 훔친 50대 검거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집 주인을 폭행한 뒤 은행통장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5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형사경찰서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B(60·여)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은행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통장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29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의 한 성당 주차장에서 그랜저 승용차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20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한 숙박시설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